



협회 일보



제910호

2026.6.17

업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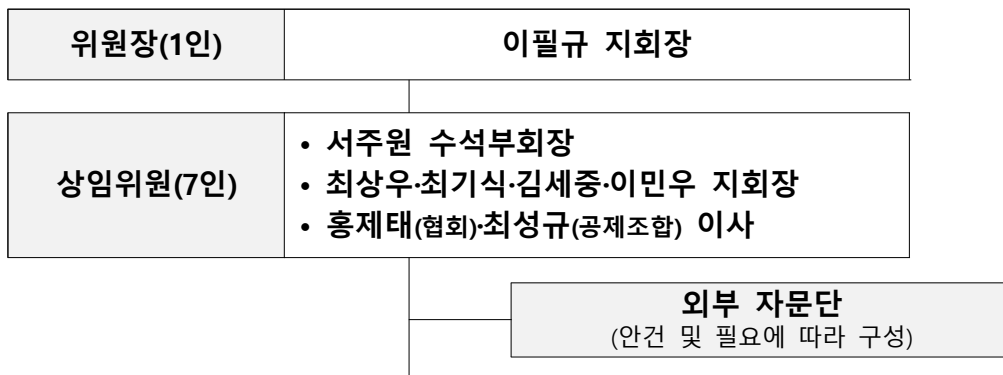
- ◇ 급변하는 건설폐기물 관련 시장 환경 및 정책 변화에 선제적 대응 목적
- ◇ 위원회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사회 승인을 통해 추진

협회와 공제조합은 지난 6월 11일 개최된 제6차 이사회에서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계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가칭)미래전략위원회 구성·운영(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이하 미래위)는 업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기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래위는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50명 이내로 운영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비상임위원은 각 지회 추천을 통해 지회별 대표회원사 2~3인으로 위촉하여 업계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이필규 지회장을 선임하였으며, 상임위원은 서주원 수석부회장, 최상우 지회장, 최기식 지회장, 김세중 지회장, 이민우 지회장, 홍제태 협회 이사, 최성규 공제조합 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미래위는 정책과제 제안,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대정부 정책 건의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정례회의와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과제는 사안별로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대응방안으로 발전시키고, 안건별로 협회와 공제조합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조직도]



비상임위원(지회별 대표회원사 각 2~3명 구성)

경기 동부	경기 서인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 경남	제주
-------	-------	-------	-------	----	-------	----	----	-------	-------	-------	----